

OYE AI 슷드라마 챌린지 작품 설정문서

작성하신 내용은 심사와 작품 소개, 플랫폼 게시에 사용됩니다. 정해진 답은 없으니 이야기를 소개한다는 마음으로 편하게 작성해 주세요.
회색 기울임 글씨는 작성 예시이며, 지우고 본인의 내용을 적으면 됩니다.

1. 작품 정보

작품 제목 (필수)

예) 오늘의 운세 : 내가 쓴대로 오늘 하루가 이루어진다면

장르 (필수)

예) 판타지 로맨스

한 줄 소개 (필수) 작품을 한 문장으로 소개해 주세요.

예) 당신이 쓴 운세대로 살게 된 남자가, 오늘 아침 운세를 들고 항의하러 찾아왔다.

전체 줄거리 (필수) 이야기의 전체 흐름을 적습니다. 배경 설정이나 세계관이 있다면 함께 적어 주시고, 영상에 담기지 않은 이후의 전개 방향까지 적어 주시면 좋습니다.

예) 현대 서울. 구독자 백만의 운세 앱 「오늘의 운세」. 이 도시에 단 한 사람, 앱의 운세 문구가 문자 그대로 실현되는 남자가 있다. 운세는 반드시 이뤄지지만, 문장의 해석 여지만큼 비틀려서 이뤄진다.

어느 날 서지한이 운세 앱 사무실로 찾아와, 석 달치 운세와 실현 기록을 내밀며 문구를 쓴 작가에게 항의한다. 반신반의한 작가가 시험 삼아 쓴 문장들이 그대로 실현되면서, 작가의 한 줄이 그의 하루를 결정하는 관계가 시작된다.

이야기가 진행되면 왜 그에게만 운세가 실현되는지, 그리고 하필 그 작가가 쓴 문장만 실현된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두 사람의 연결의 정체를 쫓게 된다.

2. 캐릭터

주요 인물별로 추가해서 반복 작성합니다.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인물은 반드시 포함해 주세요.

캐릭터1 이름 (필수)

예) 서지한

캐릭터1 소개 (필수) 성격, 말투, 배경, 외모, 인물의 숨겨진 정체 등을 적습니다. 인물 설정이 디테일할수록 좋습니다.

예) 29세 보험 계리사. 확률과 통계로 세상을 읽는 남자, 석 달째 운세 앱의 문구대로 하루가 흘러가는 중이다. 말투는 건조한 존댓말. 감정을 뺀 사실 나열로 말하지만, 황당한 일을 너무 많이 겪어 가끔 논리가 무너지며 진심이 샌다. 운세 문구를 쓴 작가를 원인 제공자로 의심하고 있다. 흐트러짐 없는 셔츠와 안경. 피곤이 쌓인 무표정이 기본값이지만, 운세 이야기를 할 때만 미간이 무너진다. 찌질한 너드남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인생을 깨달아가며 결국 운세를 넘어 본인의 인생을 주도하는 인물이 되어간다.

3. 에피소드 (제출하는 영상 회차의 내용)

에피소드 제목 (필수)

예) 1화. 황의 방문

요약 (필수) 이 회차를 한두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예) 석 달째 운세대로 살아온 서지한이 운세 앱 사무실로 찾아와 문구를 쓴 작가를 마주한다.

대본 (필수) 이 회차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적습니다. 장면 설명, 인물의 대사, 사건의 전개를 편한 방식으로 쓰면 됩니다.

예)

S#1. 몽타주, 지난 석 달

어두운 방, 자정. 휴대폰 알람이 울린다. "동쪽에서 귀인을 만나다." 다음 날, 지한은 회의실 동쪽 창가 자리에 앉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따낸다. 다시 자정,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다." 다음 날, 3년 전 잃어버린 지갑이 우편함에 들어 있다. 다시 자정, "오랜 인연과 재회한다." 다음 날, 초등학교 동창이 찾아온다. 보험 사기를 치다 걸린 채로.

지한(내레이션): "확률로 계산해 봤습니다. 석 달간 아흔한 번. 우연일 확률은, 없습니다."

S#2. 지한의 방, 자정

책상 위에 석 달치 운세를 출력해 붙여 놓은 벽. 지한이 붉은 펜으로 날짜에 동그라미를 친다. 화요일과 금요일. 실현된 운세는 전부 화요일과 금요일이다. 그때 휴대폰이 울린다. 새 운세. "운명의 상대를 만나다." 지한, 화면을 오래 바라보다 외투를 집어 든다.

S#3. 운세 앱 회사 사무실, 다음 날 아침

안내 데스크 직원: "작가님들은 전부 익명이라서요.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한, 서류철을 데스크에 올려놓는다. 석 달치 운세와 실현 기록, 날짜별 사진 증거. 소란을 듣고 안쪽 자리에서 한 사람이 일어난다. 화요일과 금요일 담당 작가다.

S#4. 사무실 회의실

지한: "석 달째 이 앱의 운세대로 살고 있습니다. 화요일과 금요일 것만. 그게 당신 담당 요일이더군요."

작가: "...그건 그냥 재미로 보시라고 쓰는 건데요."

지한: "그럼 재미로 하나 써 보시죠. 내일 운세."

작가, 장난스럽게 펜을 든다. "내일은 넘어진다, 어때요?" 지한이 펜을 손으로 막는다. 처음으로 목소리가 흔들린다. "쓰지 마세요. 진짜 넘어집니다."

침묵. 작가가 그제야 지한의 얼굴을 제대로 본다. 지한, 천천히 휴대폰을 꺼내 어젯밤 운세를 화면에 띄워 내민다. "운명의 상대를 만나다."

지한: "오늘 제가 처음 만난 사람이, 당신입니까? ...그래서, 당신입니까?"

화면, 두 사람의 얼굴에서 멈춘다. 작가가 무어라 답할지는 열린 채로 끝난다.